

## ■ 2023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 회의일시 : 1차) 2022년 12월 1일(목) 9:30~19:00  
2차) 2022년 12월 9일(금)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기혜경, 김기수, 오연서, 우혜수, 최태만

###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본 사업은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 사업 대비 지원이 부족했던 중견 예술가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지원 사업이다. 중견 작가와 기획, 출판 분야 매개자/협력자가 팀을 구성하여 전문성 있고 효과적인 작가 프로모션이 추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단순 전시 개최를 제외한 작가 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에 처음 시작하여 2023년 두 번째로 추진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중견작가 지원에 걸맞게 1년만에 사업구조가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비, 지원규모를 최대 3천만원에서 정액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자부담 의무가 없었으나 최소 10%의 자부담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예술활동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이라는 지원자격 조건을 제외함으로써, 신진작가는 아니나 중견작가라고 보기 어려운 경력 발전 단계의 작가들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확대하여 작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총 31팀이 지원하였고, 1차 서류심사에서 지역균형제도를 고려하여 총 12팀을 통과시킨 후, 2차 인터뷰를 통해 최종 8팀을 선정하였다. 2차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중견작가 대다수의 역량이 출중하고 지원금으로 진행할 사업 계획 또한 작가를 국내외에 알리고 신작 제작의 마중물이 될 여러 방면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가 및 작품 특성 상, 지원서의 설명만으로는 신작 제작 및 리서치 트립 등을 통해 작가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향후 작업 방향성이 무엇이며 출간 및 사전 리서치, 리서치 트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였다.

###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중견작가 및 협력 매개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추진하려는 프로모션기획은 크게 아카이빙, 도록 등의 출판 및 신작 제작을 위한 과정으로 나뉘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한 가지에 집중하기 보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계획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3천만원 정액 지원되는 예산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과업들을 제시한 단체의 경우, 해당 예산으로 사업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지, 사업을 기획·실행할 역량이 충분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신작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작가의 경우, 이전 작업 내용을 비추어보았을 때 어떠한 차이점과 변별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그간 미술계에서 익숙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작업 방식이라면 이와 구별되는 신작이 가진 차별점과 구체적인 작업방식이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심의하였다.

중견작가인만큼 기존의 자신의 작업 방향이 분명한 가운데, 향후 어떻게 자신의 틀을 깨거나 한 단계 발전시켜 도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작 제작을 위한 리서치 및 리서치 트립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리서치 트립의 경우, 예정된 해외 전시에 앞선 해외 유수의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네트워킹을 통해 프로모션 효과를 높이거나, 계획된 전시의 신작 제작과 보다 직결되는 리서치 트립 계획도 제시되었다.

또한 중견작가들의 홍보는 단순히 작가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많이 알리는 단순한 홍보 방향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해당 작가가 이미 일가를 이룬 작품성을 진단하고, 이 작가와 작품을 동시대 미술 내에서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이 작가를 둘러싸고 논의되었던 평론의 흐름과 발생 가능한 새로운 담론은 무엇인지 등 여러 요소를 입체적으로 판단하고 국내외 미술계를 조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프로모션과 향후 활동을 위한 제안과 제언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작 제작이라는 직접적인 단계의 지원 외에도, 작가의 작품을 도약시켜줄 수 있는 해외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네트워킹 또한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신청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점에 유의하여 지원자가 세운 해외 프로모션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구체성이 있는지 유의하여 심의하였다.

도록 등의 인쇄물을 출간하고자 계획하는 지원자들에게는, 작가 프로모션에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로 기획되고 배포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즉, 인쇄물의 예상 분량과 목차, 포함될 작품 이미지, 원고 분량 등 기획 중인 내용 자체에 대해 해당 작가의 경력 및 작품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해외 진출이 활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견작가들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국영문 혼용 또는 영문으로만 출간할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버전이 무엇일지 질의하였다.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와 명망이 높은 작가일수록 효과적인 해외 출판과 유통이 중요하므로, 해외 출판 및 유통 구조를 파악하여 해외를 겨냥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계획 중인 인쇄물의 출판사의 국내외 소재 여부, 인쇄물의 해외 배포가 가능한 출판사 또는 유통회사와의 협업도 계획하고 있는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포계획(배포처, 배포 규모 포함)에 대해 질의하였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보완함으로써 아카이빙을 계획하는 지원팀들에게는, 작가의 기존 홈페이지 대비, 새롭게 계획하는 내용과 차별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다. 단순히 기존 작품 및 전시를 아카이빙하는 것 외에, 영상 작품을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이를 업로드하거나 외부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작품의 전시권 및 저작권 상의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예산 관련해서는, 제시한 과업 내용 중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프로모션

비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추후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다.

###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1차 서류심사에서 지역균형제도를 고려하여 12팀을 올려 진행하고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된 8팀을 제외한 4팀이 떨어지게 되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 떨어진 4팀 또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한 중견작가인데다 유독 이번 해에 뛰어난 작가들이 지원해서인지 합격한 8팀에 비해 현격한 역량 차이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차에서 떨어진 4팀은 향후 신작의 방향성이나 출판을 통한 국내외 작가 프로모션 계획을 설명할 때 프레젠테이션의 구체성 또는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무엇보다도 팀당 3천만원 정액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8팀을 선정할 수 밖에 없어 탈락하게 되었다. 향후 해당 중견작가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이 안정되어 2024년에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중견작가 대상의 지원 사업이 많지 않은만큼 예산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중견작가들이 지원금 수혜를 받을 바란다.

### **소회 및 당부사항**

지원자들 다수가 한정된 사업기간 내에 한정된(3천만원 정액) 지원금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작가 및 협력자들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중견 작가인만큼 여러 측면에서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요소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작 도록을 당장 내년에 출간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해 초기작의 보존복원이 필요하며, 기존 전시 및 평론에 대한 아카이빙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러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은 인지하더라도, 3천만원이라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가를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을 축소 및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쇄물 출간 및 유통 시,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거나 논의할만한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 도록을 송부하는 것도 유의미한 홍보 수단이지만 하나, 작가에 관심을 가진 누구라도 아마존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쇄물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이다. 최근 작가들의 해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영문 도록의 해외 유통 출판 또한 가시화되는 추세이며,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 도록 또한 해외 출판사와의 공동출판 또는 해외 유통망을 가진 배포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 해외 활동이 활발한 작가들이 도록 등을 출간할 때 해외 유통판매를 고려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외 출판 및 유통 경험이 적어 미처 계획하지 않는 작가 및 협력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술위가 따로 해외 출판 유통 관련 전문의 자문을 통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견작가 프로모션 지원사업의 홍보 시 작가 및 협력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지원신청서에도 출판 시 해외 프로모션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면 사업 취지

에도 걸맞고 예술위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도록 등의 출간을 지원하는 예술위의 ‘작가조사연구비평 지원’ 사업이나 ‘중견작가프로모션 기획’ 사업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유수의 해외 출판사와의 공동출판이나 해외 유통망을 가진 배포사와의 계약을 일괄 추진해주는 것도 가능한지 제안해본다)

도록 출간은 중견작가 프로모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예술위에서 이미 추진 중인 ‘작가조사비평 연구사업’ 에서도 지원하므로, 추후 예술위에서 지원사업 각각의 특성을 더욱 홍보하여 사업내용이 겹치지 않고 사업별 특성과 취지에 맞춰 작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겠다.

파일럿 사업이라 예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위가 1년만에 사업 구조나 조건을 보완하여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확대한 점은 고무적이다. 어떻게 해야 중견 작가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예술위가 지원의 내용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앞으로 작가 및 협력자들의 만족도는 물론, 중견작가프로모션 지원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를 토대로 중견작가프로모션 지원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진 작가들에 비해 역차별한다거나 시각예술 지원 사업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중견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는 데 해당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마중물이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한국 미술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작가들을 위해 이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의위원 일동